

새봄을 기다리며

아기와 함께한 결핵 투병

글 김기선^아(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임신 중반에 다녀온 여행 직후부터 시작된 감기 기운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뱃속의 아기에겐 문제가 생길까봐 약도 쓸 수 없었다. 포도즙, 은행 등 기침에 효과가 있다는 음식으로 상태의 호전을 기대할 뿐이었다. 산후조리를 하면 나아질 것이라고 모두들 말했고 나도 그렇게 믿었다.



드디어 출산일. 순산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10시간이 넘는 진통 속에 어렵게 아기와 만났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인지, 나도 아기도 모두 훌쩍했다. 많은 사람들이 산모치고는 너무나 날씬한 나의 몸을 부러워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급격히 나빠지는 몸 상태를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다. 기침의 횟수는 점점 많아지고, 기침을 할 때마다 목이 끊어지도록 아팠다.

출산 후 3주가 되어 아기 예방접종을 하러 나간 길에 소아과에서 약을 지어 먹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다. 딱히 나아지는 느낌이 없었지만 집에서 혼자 병원을 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산후도우미 아주머니께서 아침에 청소를 하기 위해 창문을 열기만 해도, 쏟아지는 기침을 멈출 수 없었다. 임신 중에는 그래도 내 몸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젠 친정, 시댁식구 할 것 없이 다들 내 감기가 아기한테 옮을까봐 걱정이다. 왜 좀 더 씩씩하게 육아와 가사를 못해 내는가 하며 못마땅해들 하셨다.

설거지만 해도 땀이 비 오듯이 쏟아졌다. 출산 후 5주가 될 무렵엔 밤마다 열이 나고 기침이 나서 잠을 자기가 어려울 지경이 되었다. 친정아버가 지어오신 감기약을 먹으니 젓이 엄청나게 줄었다. 그래서 약을 끊고, 해열제만을 먹기로 했다. 해열제를 먹고 누우면 침대 시트가 폭 젖도록 땀이 났다. 땀이 나면 기침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밤에 잠옷을 5~6벌씩 갈아입어야만 했다. 취업준비에 민감해진 신랑은 나 보기가 괴로워서인지 거실에서 방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옛 이야기 중에 '아기를 낳고 시름시름 앓다 죽었다'는 대목이 종종 등장하는데, 이게 그런 증상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밤의 증상은 계속 더해졌고, 가래가 너무 많이 생겨서인지 누워 있으면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오른쪽으로 누워 웅크리고 있어야 그나마 숨도 잘 쉬어지고 기침 횟수가 줄었다.

출산 후 7주, 아침에 기침을 하다가 가래를 뱉었는데, 그 양이 두 손에 딱 차고도 넘쳤다. 신랑이 동네 병원에 데리고 갔다. 의사선생님께서도 내가 호흡이 많이 안 좋다고 하시면서, 호흡기 검사와 함께 엑스레이 검사를 하셨다. 엑스레이에 비친 나의 폐는 거의 백지에 가까웠다. "TB네" 하고 의사선생님은 말씀하시면서, 증상을 방치해온 나와 가족을 나무라셨다. 아기는 당장 격리시켜야 하고, 아기와 남편 모두 결핵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상하게도 당황스럽지 않고 덤덤했다. '마침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다. 3일간 객담검사를 하고 투약을하기로 결정하였다.

집에 돌아오자 침대에서 마냥 편안하게 자고 있는 아기가 눈에 띄었다. 남편은 서둘러 아기를 걸싸개에 싸서 환관문을 나섰다. 남편의 바쁜 손길에 갓 아기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

다. 그 후 한 달 간의 생이별을 직감하기라도 한 듯이……. 그리고 나는 친정으로 보내졌다.

친정의 아파트단지에는 함박눈처럼 풍성하게 벚꽃이 피어 있었다. 벚꽃축제를 준비하느라 곳곳에 청사초롱도 달고, 아파트 주민들은 모두 축제 분위기였다. 그렇지만 내 눈에는 그 많은 꽃잎들이 내 콧구멍을 통해 폐로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끊이지 않는 기침 속에 집 들어간 나는, 인터넷으로 결핵이라는 병에 대해 알아보았다. 결핵협회의 보고서들과 치료 실패 수기들은 결핵이란 병의 심각성을 내게 일깨워 주었다. 심리적 요인 때문인지 그 날 밤은 더욱 괴로웠다. 그리고 나의 앓는 모습을 처음으로 자세히 보신 친정 부모님들께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기로 결정하셨다.

병동 제일 끝의 2인실에 나의 소지품이 정리되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다소 낯설었다. 10년도 넘게 살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동네 뒷골목을 하루 종일 보았다. 영업을 그만둔 지 좀 된 것 같은 공중목욕탕, 오래된 카센터, 그리고 허름한 주택들. 앞을 향해 뛰기만 했는데, 이런 예상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 멈추어 선 내 모습이 어색했다. 그러나 이 휴식을 즐길 여유가 나에게는 없었다. 몸을 웅크리고 앓은 숨을 쉬며 기침을 최대한 참으며 낮을 보내고 나면, 끔찍한 저녁시간이 돌아왔다. 저녁의 기침과 열은 거의 제어할 수 없었다. 두꺼운 이불을 덮고, 혼자 끄끙 앓으면서 새날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아침에는 간호사가 회진을 하면서 주사를 놓아 주었는데, 나는 주사를 맞기가 무섭게 기운이 빠져 잠이 들곤 하였다. 약수를 엉덩이에 댄 채 그냥 굶어떨어진 적도 있었다.

행한 병실 속에서 적막의 시간이 흘렀다. 자연스레 나의 28년 생애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화목한 가정에서 보낸 유년기와 사춘기, 나의 모든 것을 재발견하고자 분투하였던 대학시절,

어려운 취업 관문을 뚫고 원하는 직장에서 일하게 된 20대 중반, 그

리고 나의 분신과도 같은 소중한 반려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허니문베이비를 가지게 된 이야기들. 혹시 내가 그동안 너

무 행복해서 시련을 받는 것일까? 내가 잘못 된다면 우

리 아기에게 어떤 죄를 짓게 되는 것일까, 아기가 결

핵에 걸리면 불구가 될 수도 있다던데……. 생각이 생

각의 꼬리를 물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내가 원망

했던, 나를 힘들게 했던 많은 사람들과 일들은 모두 이해

가 되고 용서가 되었다. 힘들 때 사람들은 종교에 의존하

게 된다던데,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면, 하늘나라로 구원해

주실 것만 같아 겁이 났다.



외로운 마음에 지인들에게 전화통화라도 하고 싶었지만, 내가 결핵이라는 것을 안다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친구들이 나를 만나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병원 곳곳에 비치된 샵티, 좋은 생각 등의 책에 눈이 갔고, 그 속에 담긴 범상인들의 다양한 삶이 위안을 주었다. 책에 줄을 쳐가며, 그리고 내 생각을 적어가며 읽고 또 읽었다.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깨끗한 마음 하나로 이겨나는 이들의 인생에 파이팅을 외치며, 나도 언젠가 내 스물여덟 시절을 작은 미소로 돌아보길 기원하며!

그렇게 잔인한 4월이 지나갔다. 입원 중에 억지로라도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몸무게는 오히려 줄어 있었다. 그리고 어린이날이 되어 나는 아기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아기는 그 사이에 많이 자랐다. 내 아기가 맞는데, 내가 키우던 그 아기와 무언가 달라진 것 같고, 아기를 내 손에 안기는 했지만 젖이 끊겼으니 조금 난감한 기분이 들었다. 복잡한 감정을 추스르던 중 나도 모르게 노래가 흘러나왔다. 내가 어린 시절 엄마랑 함께 부르던, 임신기간 동안 자주 흥얼거리던 그 노래. 그런데 그 노래를 불러주자 아기가 갑자기 환하게 웃는 것이었다. 거의 10분 가까이,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말이다.

퇴원 후 한동안 나의 몸은 거의 약물에 중독되어 있는 것 같았다. 약 먹는 것을 거름까봐 무서워서 아침 공복에 약을 입안으로 쏟아 붓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기한테도 가루 약을 털어 넣고, 마냥 잤다. 쓰러져 있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지도 모르겠다. 너무 힘이 없어서 같이 자던 아기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것도 방어하지 못한 적이 태반일 정도였다. 피부는 점점 거칠어지고, 가끔 다리가 저리기도 하고, 주사를 너무 많이 맞아서 엉덩이는 더 이상 맞을 곳도 없어 보일 정도로 울퉁불퉁 튀어 올랐다. 몇 달 간 주사를 맞은 후엔 거의 한쪽 다리가 마비될 지경이 되어서 며칠 동안 절뚝거리며 걸어 다니기도 하였다. 나에겐 너무 추웠던 2005년, 그해 봄이 지나 여름의 문턱인 6월까지도 나는 겨울코트를 입고 주사를 맞으러 병원에 다녔다.

그리고 새해가 돌아왔다. 9개월의 치료를 마치고, 나는 설 선물로 결핵 완치 판정을 받았다. 속립성 결핵이라서 그런지, 사진 상 나의 폐는 완전히 정상상태였다. 끝이 없을 것 같이 느껴지던 나의 투병생활, 돌도 안 된 아기와 함께 약을 먹으며 보낸 그 시절에는 인생이 허무하고 원망스럽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할 일 뿐이다. 어찌되었든 나는 병의 원인을 알아내어 다시 건강을 찾았고, 혹여나 더 일찍 원인을 알았더라면 나는 우리 아기와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휴식을 할 수 있는 직장에 다녔었기에 나의 소중한 직업을 지킬 수 있었고, 이제는 나의 가족과 일을 모두 사랑하며 살고 있다. 아니, 기침을 하지 않고 숨을 크게 들이쉬 수 있는 것으로도 얼마나 큰 행복인가. ♣